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0. 3. Vol. 298



yangyang news_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및 총력대응
군민여러분 쓰레기 소각장 증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먼저 상담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희망양양

- 04 기획특집_ 아이 키우기 좋은 양양입니다.
- 06 ISSUE & PEOPLE_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양양지회
- 09 발걸음 촌촌, 마을 가는길_ 강현면 간곡리
- 12 맛있는 양양여행_ 양양 3대 바다나물

의기양양

- 14 YANGYANG NEWS
- 20 의정소식_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추진상황 점검
- 22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죽도

열린양양

-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6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COVER STORY



송어리 고로쇠 수액 채취 현장



양양소식 · 298호

| 발행일 2020년 3월 2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n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양입니다

임신부터 육아, 아동지원정책까지 한눈에 살펴보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 군은 2018년 말부터 인구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도로망 확충과 교통인프라 구축, 택지 조성, 서핑산업화 등을 통해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이 키우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 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구증가세라는 고무적인 성적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임신계획부터, 출산, 육아, 아동지원까지 우리 군의 촘촘한 지원정책들을 한눈에 살펴보자.

'찾아가는 산부인과'로 의료공백 최소화

우리 군은 임신 전부터 엽산제 지원을 시작으로 임신주수 단계별로 철분제, 유산균제를 지급하고 출산 이후에는 유축기 대여와 산모에 필요한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에 산부인과가 없어 인근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받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온 임신부들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이동검진 버스를 타고 직접 마을을 방문해 산전 진료부터 초음파, 기형아 검사(2차 검사)등 임신 주수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비용은 무료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와 고위험군 임신부에게는 시술비와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다. 난임부부에게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총 지원 횟수가 17회로 확대되고 연령 제한도 폐지됐다.

분만 후에는 신청일 기준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출산 산모에게 임신부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가 지원되고 의료기관, 약국 처방에 의한 산모 본인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바우처 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지원, 산모식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검진 버스

사 준비와 산모·신생아 의류와 침구 세탁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한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등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 밖에도 소득수준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과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도내 1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난 2018년부터 우리 군의 출산축하금과 장려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도내에서 지원규모가 가장 높아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출산축하금 100만 원과 함께,

출생아 수에 따른 출산장려금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매월 지급된다. 총액으로 계산할 때 첫째가 220만 원부터 넷째 이상은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출산축하금	100만원			
출산장려금	월 10만원(1년간)	월 20만원(1년간)	월 30만원(2년간)	월 50만원(3년간)
총액	220만원	340만원	820만원	1900만원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체계적인 보육, 양양군이 책임집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 아이들이 우선이지만, 타지역보다 공공성을 강화해 시설과 프로그램이 탄탄해서 늘 대기 신청을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올해 우리 군은 육아아동지원정책에 보다 획기적인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 사업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 우리 군이 운영을 맡게 될 통합어린이집을 건립해 공공 보육 혜택 강화는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통합지원

센터로 보육공공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산, 육아, 보육 등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복합화 할 수 있는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육아서비스를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으로 사회, 경제활동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덜게 돼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기대된다.

〈글·사진 편집부〉

문의

- 모자보건사업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670-2533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보건소 방문보건 ☎ 033-670-2559



네 자녀 다둥이 가족 /

“양양에 와서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도시에 살았다면 넷째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나정현(41세), 장혜인(38세) 씨 부부는 양양군에서 넷째 아이를 키우는 혼처 않은 집이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1학년, 그리고 갓 100일 된 아들까지 2남 2녀를 키우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의 확대에 도내에서 지원규모가 가장 크다. 넷째 이상부터 큰 폭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제도가 시행되고 나정현 씨네 막내가 1호 수혜자가 됐다. 양양출생을 기준으로 할 때 그만큼 양양에서 넷째 아이를 키우는 집이 드물다는 것이다.

“도시에 살았다면 아마 넷째를 낳을 엄두가 안 났을 거예요. 도시에선 아이들을 키울 때, 노는 것까지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양양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넷째를 낳고 생각지도 않은 금액의 출산 장려금까지 매달 받으니 든든합니다.”

밝아진 아이들, 양양에 오기 잘했어요.

인천에 살던 나정현 씨 가족은 지난 2016년부터 양양에 정착해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가족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지만, 양양만 한 데가 없었다. 그래서 매년 휴가철이면 양양에 놀러 왔고, 10년 전 양양에 집을 마련하고

주말마다 내려오다가 아예 보금자리를 옮겼다.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양양에 와서 가장 좋은 건 아이들이 나가서 마음껏 뛰놀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에 살 때는 소심하고 눈치만 보던 둘째 아이가 양양에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왈가닥이 돼 있는 거예요. 마음껏 뛰어놀고 에너지를 분출하니 까 달라진 거죠. 이제 숨 막힌 도시에서 못살 것 같아요.” 부부는 밝아진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양양에 내려오기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집으로 찾아오는 산부인과, 맞춤형 서비스에 감동

양양에 와서 7년 만에 넷째를 임신한 장혜인 씨는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마음에 쏙 들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병원 다니는 일도 보통이 아닌데, 산부인과 진료를 볼 수 있는 버스가 집으로 찾아오니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대부분 임신부들이 출산 전 임신·출산 바우처 카드에 남은 잔액이 없는데, 장혜인 씨는 초음파 검사 등 무료 진료를 받아서 40만 원이 남을 정도였다. 이 정도면 양양에 사는 임신부만의 특혜다. 귀촌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지다. 그렇게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부부는 자신 있게 말한다. 아이도, 어른도 살기 좋은 곳 양양으로 오라고.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까지 생기면 양양에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부부는 입을 모은다.



양양 도로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이 달려간다!

봄은 소란스럽다. 만물이 소생하느라 분주하고, 그 풍경을 보겠다고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길이 번잡하다. 새 학기를 맞아 등교하는 아이들로 횡단보도는 왁자하고, 아침 출근을 서두르는 차량들이 도로 위를 수시로 오고 간다. 복잡한 길 위에서 모두가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일상을 이어간다. 1년 365일 내내 양양의 도로를 지키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양양지회'(이하 양양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의 활약 덕분이다.



봉사단체로서 공신력을 얻기 위해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양양모범운전자회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속초지회'에 분회로 속해 있었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는 '각 지방경찰청 산하에 지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양양군에 관할 경찰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양양모범운전자회는 강원도 18개 시·군 단체 중에 유일한 분회였다.

“봉사 물품을 지원받아도 지회에 우선으로 배분되고, 분회는 남은 수량을 할당받는 구조였어요. 모두 똑같은 회비를 내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승만 회장은 타 도시의 사례를 찾아 근거로 제시하면서 속초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양양모범운전자회의 지회 승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고정된 틀에 맞서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박승만 회장은 끊임없이 그 문을 두드렸다. 봉사단체로서의 공신력을 갖기 위한이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양양모범운전자회는 '분회'에서 '지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다.

현재 양양모범운전자회에서는 3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가입 자격은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사업용 차량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하며, 여기에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10년 이내에 범죄경력 전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양양모범운전자회에서는 무엇보다 '인품'을 중요시한다. 현장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서류로는 확인할 수 없는 주위의 평판까지 꼼꼼히 고려하는 편이다. 박승만 회장은 양양모범운전자회의 수장으로서 원칙과 체계를 중요시한다. 그만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봉사할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모범운전자는 곧 신호등이다



모범운전자의 주요 업무로는 교통경찰 보조 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이 있다. 양양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은 쉬는 날 교대로 교통 근무 봉사를 하는데, 1월 1일 해맞이 축제 현장 교통정리를 시작으로 3월부터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책임지고, 연중 열리는 크고 작은 축제 현장에서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모범운전자는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임명하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는 경찰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규율상 헌병, 경찰, 모범운전자 외에는 도로 위에 나오지 못합니다. 모범운전자들은 수신호 교육도 따로 받죠. 자세가 정확해야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복장도 매우 중요한데 모자, 반사 조끼, 하얀 장갑, 검은 바지, 검은 신발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트리면 복장 불량으로, 도로 위에서 있는 것 자체가 위반이에요.”

신호등이 고장 났거나 차량 통행량이 많고 혼잡한 현장에서 모범운전자는 곧 신호등이다. 도로 위의 운전자는 모범운전자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시 의무 위반 차량 때문에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수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교통정리 중인 모범운전자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것이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도로 위 양양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은 늘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박승만 회장은 운전자들에게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반드시 지켜주기를 당부한다. 모범운전자들도 안전을 위해 더욱 집중해서 도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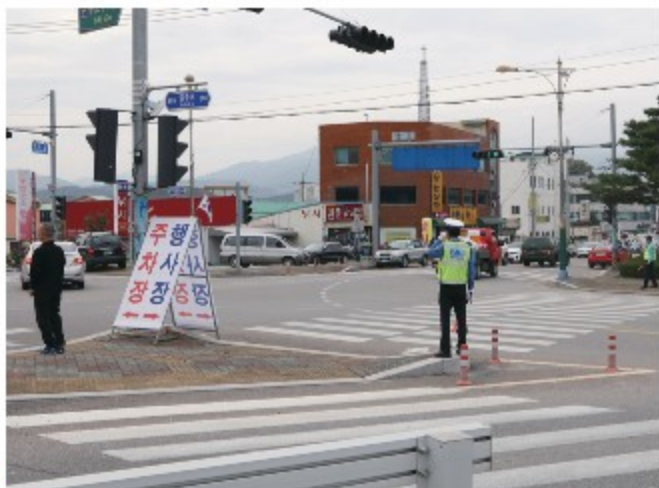
봉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필요

양양모범운전자회는 다른 지회에 비해 회원 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인근 지역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기로 정평이 났다. 개인 업무 중 사고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복장을 착용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교통정리를 하기도 한다. 회원들의 빛나는 활약 덕분에 양양모범운전자회가 출동한 현장에서는 작은 사고 한번 없었다는 것이 큰 자랑이다.

스스로 선택한 봉사의 길이지만,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할 리가 없다. 그러나 바쁜 생업 활동 가운데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임하는 모범운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많지 않다. 거의 무보수로 교통 근무를 서고, 한 벌에 40만 원에 이르는 의복도 자비로 구입한다. 그럼에도 다달이 내는 소정의 회비로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관광을 추진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전하는 감사 인사와 봉사를 통해 얻는 보람이 그들의 가장 큰 수익이라면 수익이다. 올해로 5년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승만 회장은 봉사에 매진하는 회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모범운전자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타 도시 모범운전자들의 활동 사례를 보고 배우며, 보고서까지 남기는 과정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봉사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박승만 회장은 생각한다. 숨어서 하는 봉사만이 미덕은 아니다. ‘오



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알아야’ 더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양모범운전자회는 활동 점수제를 도입해서 열심히 봉사 활동에 참여한 회원에게 매년 상패를 수여한다. 그는 앞으로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외부의 지원 및 후원, 관심과 응원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봉사의 이유는, 고향 사랑



박승만 회장은 26년 차 택시 기사이다. 20대 중반에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3개월만 하고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양양모범운전자회 회장이 되어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교통방송 통신원으로 활약하며 양양의 도로 상황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어린이 안전 교육을 진행하며 사건 사고 없는 안전한 양양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양군의 지역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숙박, 먹거리, 축제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 제작했다. 택시 안에 설치한 태블릿으로 영상을 재생하고, 승객들에게 양양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의 소득 창출을 꾀하고자 한다. 그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양양을 꿈꾼다.

그가 이렇듯 바쁘게 일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애정이 깊기 때문이다. 양양모범운전자회 회원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꺼이 봉사에 동참하고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도로 위를 지킬 박승만 회장과 양양모범운전자회 회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오늘도 무사안전!

〈글·사진 편집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강현면 간곡리

토착민과 이주민의 행복한 보금자리
양양 최초 마을 작은 도서관
마을 단체 채팅방으로 소통

멀리 바라보이는 대청봉은 아직 눈에 덮여 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또렷한 대청봉을 바라보며 길을 따라가면 나타나는 마을, 간곡리. 겨우내 비어있던 들판에는 봄의 기운이 느껴진다. 마을회관으로 가는 길가 아담한 들에는 지난가을에 씨 뿌린 유채 새싹들이 반가운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조용하던 간곡리 마을에도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019년 강원도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공모 선정

사잇골 보금자리 (간곡리)

- 행복한 문화공간, 평생살이 보금자리 (간곡리)



대청봉 아래 작고 조용한 마을

석교보건진료소를 지나 물치천을 따라 올라가면서부터 간곡리가 시작된다. 대청봉 아랫마을 중에서도 석교리와 둔전리 사이에 있다 하여 간곡리라 이름이 붙었다. 마을 초입에 있는 아담한 마을회관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을 일을 맡은 남정희 이장과 마을 주민들을 함께 만났다.

“작년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마을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장이 됐어요. 간곡리에서는 두 번째 여자 이장이고요. 20여 년 전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읽고 답사를 다니던 중에 이 마을에 반해서 눌러앉았어요.”

예로부터 경주 최씨 집안이 대대로 모여 살았던 간곡리에는 20여 년 전부터 이주민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자식들은 점차 도시로 떠나고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을 찾아 들어온 이주민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토착민과 이주민이 현재 각각 절반의 비율로 마을을 구성하고 있다. 36가구에 76명의 주민이 어울려 사는 작고 조용하던 마을은 지난해부터 들썩이기 시작했다.



남정희 이장님

토착민과 이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 회복 필요

마을 공동체를 지켜가던 토착민들은 점차 연로해지고 이주민들은 점차 늘었지만 이들, 사이에 소통과 교류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마을 도로가 폐쇄되는 등 공유재산 소유권 소송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주민들 간의 소통이 절실함을 몸소 경험했다. 갈등을 계기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2019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도전했다.

“간곡리로서는 처음으로 마을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교직에 있다 퇴직하면서 마을회관에서 주민들 몇 분을 모시고 같이 요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소통도 좀 늘고 해서 어르신들도 모시고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면 어떨까 하다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경치도 좋고 살기 좋은 마을이지만 간곡리에는 그 흔한 펜션은 물론, 식당도 카페도 없다. 어지간한 마을마다 있는 벤치, 야외 운동기구가 있는 쉼터도 없다. 오로지 가정집이 전부인 마을. 상수도가 보급되고 시내버스가 마을 안으로 들어온 지는 10년쯤 됐다. 그전에는 석교리 마을까지 걸어 내려가서 버스를 타야 했을 만큼 교통도 매우 불편한 마을이었다. 그런 간곡리에 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대단한 변화를 가져왔다.



양양 최초의 마을 작은 도서관부터 인문학 투어까지

행하던 마을회관 구석에는 작은 책장이 하나 놓였다. 마을 주민들의 연령층과 남녀 비율을 고려해서 100여 권의 책을 사서 이름 붙인 간곡리 작은 도서관이다. 농사, 식물, 약초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구입한 책과 기증받은 도서로 이루어졌다. 최근 기증받은 그림책들은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다.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은 나란히 앉아 그림책을 보기도 하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수세미 손뜨개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요리팀을 만들어 함께 반찬을 만들어 나눠 먹고 고추장도 함께 담갔다. 양양국악원에서 강사를 모시고 장구를 함께 배우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마을회관은 조용할 날이 없었다. 주민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춘천에도 다녀왔다. 역사 선생님을 따로 초빙해서 도립화목원, 용기박물관, 옥동굴 체험관, 막국수 체험관을 방문하는 인문학 투어를 떠났고, 특히 일산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한 일은 특히 잊을 수가 없다. 관광버스를 대절해 박람회를 실컷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돌아가며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어울리면서 주민들 사이가 더 각별해졌다. 그때의 경험은 한가위 맛이 마을 노래자랑으로 이어졌는데 밴드까지 초빙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겼던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잇골 보금자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에는 단체 채팅방이 생겼다. 일정과 내용을 수시로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한 명 이상이 참가하는 마을 채팅방을 개설했다. 처음에는 이장이나 프로그램 담당자가 내용을 알리는 용도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주민들의 소통 창구가 됐다. 주민은 물론 타향으로 나간 2세대들과의 소통까지 이어졌다.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고 마을 일을 함께 의논하며 격려하면서 평생 동안 함께 살아갈 보금자리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마을 공동체로서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마을에 보다 도움이 되는 일을 추진하고 싶어요. 둔전계곡을 따라 트래킹코스가 개발되고 있는데, 트래킹 코스를 여행하는 분들이 우리 마을에서 식사도 하고 농산품도 사 가실 수 있게 해서 아름다운 우리 마을을 좀 더 알릴 수 있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마을주민들은 이장 연임을 최대 4년까지 가능하게 정관을 바꾸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또는 타성에 젖는 대신 주민들이 골고루 마을에 관심을 갖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새봄, 간곡리 마을의 새바람이 더욱 기대된다. <글·사진 편집부>



홍단의 진달래와 함께 돌아났던 양양 3대 바다나물의 회상



서해안이나 남해안에는 있지만 동해안에는 없는 것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갯사람들이 자기들 목숨처럼 섬기는 갯벌이다. 그 갯가로 갯벌은 그들의 말처럼 먹을수록 당기고 그리워진다는 '개미 진 맛'의 별미나 별식 할 음식을 내준다. 낙지, 소라, 바지락, 꼬막, 대합, 굴 할 것 없이 호미질에 한 망태기씩 넘쳐나니 동해 사람들은 질척거리는 갯벌은 싫어해도 문턱 넘어 지천으로 널린 그 맛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갯사람들에게 갯벌은 '삶의 자서전'이고 갯벌은 갯사람들에게 '검은 창고'이다. 빗대어, 동해의 모래밭은 파도가 남긴 작은 상념들로 놀기는 좋아도 딱히 거둘 것 없이 하얗게 달빛만 깔린 허허로운 감동의 아쉬움뿐인데, 그래도 늘상 흐르는 바다에서 양양 사람들이 제철에 걸어나 먹었던 '개미 진' 별미가 없었을까.



막나물



보리해동(뒗)



우무가사리

‘개미 진’ 맛이 좋아 쟁여놓고 먹던 로컬푸드

끝내 겨울을 이겨 낸 봄벌로 진달래가 필 때쯤, 갯벌만큼 별미 별식 할 것은 없더라도 굼거나 뜯어다 먹었던 옛 별미가 있었다. 쇠털, 고리매, 보리해동, 우뚝가사리, 쇠미역처럼 이름도 생소한 옛 별미가 양양의 봄 바다에 있었다. 본래 바닷물이 잘박거리는 갯바위 언저리나 한 뼘 깊이에서 덕지덕지 돋는데, 성곽 같은 방파제에 묻혀 그 많던 나물바위들이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유물이 되어버렸다. 갯사람들처럼 호미질이 아니라 전복껍데기나 쇠술로 한 술, 두 술 굼어야만 먹을 수 있었던 바다 나물로 생각해보면 ‘회한의 맛’ 이었고, ‘통념의 맛’ 이었다. 한때는 양양 고유의 음식문화 산물이었으면서 가장 토속적인 바다로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 주 던 갯나물이었고 갯바위들이었다.

쇠털, 고리매, 막나물은 양양의 봄 바다에서 먹을 수 있었던 3대 진미의 갯나물 이었다.

그 ‘회한의 맛’이라는 게 이런 것 이었다. 섬세한 질감의 요즈음 음식 같지 않은 맛이고, 앞선 것만 생각해내는 요리사들도 감히 흉내 낼 수 없었던 건진하면서 상쾌미가 있어 무거리가 남지 않는 맛 이었다. 쇠털이나 고리매, 파래, 김 구분하지 않고 이것저것 막 섞어 말린 ‘막나물’은 그냥 먹어도 날 맛이 나서 좋는데, 술가지에 들기름을 슬쩍 발라서는 가물가물한화로잔불에 휘리릭 구워내면 전라도 사람들의 맛 데로 ‘개미 진’ 맛이 좋았다.

사라져가는 유일무일 했던 바다나물

쇠털은 국을 끓여도 뜨거운 줄 모른다는 남해의 매생이격으로 매생이 보다 가늘다. 소의 털牛毛을 닮아 붙은 이름 때문에 진짜 소의 털로 만든 나물을 양양 사람들은 먹는 줄 오해도 있었고, 갯바위를 가장 미끄럽게 하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양양에서는 쇠털로 국을 끓이기보다는 여러 나물과 섞어 말려 먹었기에 사위가 밍상이면 슬그머니 속에서 펄펄 끓고 있는 매생이국을 대접했다는 남해사람들의 고약한 심보에 양양의 사위들은 그럴 없어 다행이기도 한 갯나물이다.

‘고리매’는 된장국을 끓일 때 건더기 격으로 넣어 먹던 갯나물로, 김처럼 말려 기름에 튀겨 설탕을 뿌려 먹거나, 초무침을 하는데 김 보다 감칠맛이 깊어 생각지도 못한 입맛을 준다. 김발에 말릴 때 얼기설기한 모양과 누런 색깔 때문에 누더기 같다하여 불리는 ‘누더나물’이라는 이름이 억울한 갯나물 처럼 음식은 지역 사람들의 정서뿐 아니라 문화와 풍습 등이 함축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 문화코드이다.

지역의 옛 음식과 음식문화를 회상하는 것은 그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언어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양 사람들만의 고유한 음식문화가 시작된 원형이기 때문이다.

〈글·사진: 강원도 외식저널대표 황영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및 총력 대응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잠정 폐쇄, 개인 위생 철저 당부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 국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국내 확진환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이며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및 조치를 위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업무 구체화와 사례 정의를 개정하여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2. 26 기준) 우리 군은 확진 환자가 없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의단계



의료기관에 환자 방문 시 입국자의 방문 이력을 확인토록 안내 및 지도하여 사전 차단하였고 개별·집 단교육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스크, 손소독제,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였고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경계단계



양양군 지역대책본부 운영, 양양군 비상방역대책반 운영,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강화하였고 감염병 업무량 증가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염병전담반을 편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현장 즉각 대응 역학조사반과 방역기동반을 편성, 유관기관인 소방서, 경찰서와의 협력·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양국제공항에 보건소 인력을 투입하여 입국자에 대한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공항 실내·외 방역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 양양전통시장 일대를 1일 2회(오전/오후) 소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취약계층 대상 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요양시설, 어린이집, 학원 등에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포스터를 배부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를 통해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응지침을 안내하고 여행 최소화 및 여행 시 유의사항 등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행사장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단행사의 위험요인 및 주최기관의 방역적 조치사항을 평가하고 협업유지와 함께 발열 감시, 위생 관리를 위한 소독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단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총력 대응을 위해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기존 5개반 8명에서 8개반 37명으로 확대하여 24시간 상황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과 군민체육센터 등의 체육시설에 이어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등을 잠정폐쇄하고 기존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체(력)증진실, 치매안심센터 운영(치매선별검사만 운영)도 임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한, 여성회관과 청소년 수련관, 지역아동센터(5개소)가 임시 휴관에 들어가고, 어린이집(9개소)은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천주교현북공소 무료급식소는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락배달로 전환되었습니다. 노인회관 및 마을별 경로당(130개소)도 임시 휴관에 들어갔으며, 노인일자리사업(3개소)도 3월 8일까지 임시 중지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을 비롯해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모임, 회의를 취소하고 민간 행사도 개최하지 않도록 권고해 지역 사회 발생을 적극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선제적인 대응과 군민들의 협조로 현재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된 만큼 양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끝까지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쏟겠습니다. 군민여러분의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예방행동수칙 숙지를 당부드립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은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평상시

-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1~2일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 취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가용 이용 (대중교통 이용 삼가)
- 진료전 여행 방문지 이력 알리고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 증상이 지속될 시 대학병원,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고 보건소 (☎670-2119), 1339콜센터 또는 120콜센터에 상담하기

▶중국(홍콩,마카오 포함)방문력 또는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방문력이 있을 시

- 유증상(37.5℃이상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있을 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 선별진료소(☎670-2119)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상담받기
- 야간에 증상 발생 시 인근지역 선별의료기관(속초의료원 강릉의료원 강릉아산병원) 사전 전화 후 방문하기
-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사람은 확진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이행 준수하기
- 확진검사 결과 음성이면, 자가격리 해제 후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감시

▶코로나-19 발생 우려에 따른 소독 청소방법

- 손이 닿는 모든 부분은 하루3번 이상 소독액을 이용하여 닦아야 합니다.

▶페트병을 이용한 간단한 소독액 만들기

【준비물】

염소계 표백제(시중판매 락스), 500ml페트병(잘 씻고 건조한 병), 종이컵,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0.1%(1,000ppm) 농도의 소독액 만들기】

- 0.1%(종이컵 1/5컵 분량)염소계 표백제를 페트병에 붓습니다.
- 표백제가 든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뚜껑을 닫고 잘 흔들어 섞습니다.

【사용법】

- 소독액을 종이타월 등에 묻혀 닦고 10분 후에 깨끗한 물걸레로 닦아냅니다. (문고리, 전화기, 컴퓨터, 마우스 번기, 수도꼭지, 침대난간, 전화기 등)
-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비누를 이용하여 올바른 손 씻기를 합니다.



군민여러분 ! 쓰레기 소각장 증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군 쓰레기소각장 증설사업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쓰레기처리장(환경자원센터) 입지선정 과정은 이렇습니다.



- 과거 우리군에서는 쓰레기를 읍면별로 비위생매립장에 매립하여 왔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03년 2월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공개 모집한 결과 양양읍 화일리에서 지원함에 따라 '양양군환경자원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화일리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용역' 결과 2003년 11월, 1일 40톤(20톤/2기)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근거로 12월 폐촉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일리 490-1번지 외 53필지(146,736㎡) 일대를 양양군환경자원센터 입지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간접영향권 마을과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하였습니다.



- 2004년 3월 양양군수와 간접영향권 지역(화일리, 거마리, 서선리, 장송1·2·3리, 수상리, 물갑리, 사교리) 마을회 대표 9인 간에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75억 원과 62건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60억 원 등 총 135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30년 간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따라서 9개 마을에 총 75억원의 주민지원금이 지원되었으며, 가구별 지원규모를 보면 화일리(49가구) 가구당 최대 5,000만원, 거마리(62가구) 3,600만원, 서선리(22가구) 5,000만원, 사교리(14가구) 750만원, 장승1리(56가구) 780만원, 장승2리(19가구) 820만원, 장승3리(48가구) 59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행협약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일리 1,633백만원, 거마리 982백만원, 서선리 982백만원, 수상리 1,112백만원, 물갑리 357백만원, 사교리 504백만원, 장승1,2,3리 430백만원 등 총 60여 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2004년 4월 환경부에서는 전국 군단위에 일률적으로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 및 환경성조사 용역 결과 당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도 처리하기 부족한 시설이었습니다.
- 이에, 우리군에서는 용량 증설을 위하여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여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2011년 이후 1일 20톤 처리 용량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의 국비지원 중단과 재정여건 등으로 추가로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래서 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 우리군에서 1일 반입되는 쓰레기는 41톤으로 1일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은 28톤에 불과하므로 매일 46%를 초과하는 13톤을 처리하지 못하고 압축포장하여 실내매립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 중인 1,000톤을 태백시에 위탁처리 있으며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 현재 실내매립장에는 10,000톤이 보관되어 있으며, 지금 우리군의 계획대로 소각로가 증설되어 준공되더라도 2023년 3월경까지 약 20,000톤 정도가 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처리 비용은 약 54억 원이 예상됩니다.
- 그래서, 2012년부터 소각로 처리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8년 12월 1일 48톤 처리용량의 소각로 설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양양읍 군정설명회에 보고, 2019년 4월 제1차 주민설명회 개최, 2020년 1월 제2차 대표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이런 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합니다.



- 적체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군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발생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소각로 설치가 시급합니다.
- 우리군에서 증설하는 1일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설비로서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으로 비교하여 현재 운영 중인 소각로보다 80% 감소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량은 담배 1갑에서 발생하는 0,007ng/m³ 보다 적은 0,006ng/m³ 미만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완전 소각처리 함으로써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쓰레기 소각장 증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쓰레기 소각장 증설은 군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아울러 쓰레기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군에서는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YANGYANG NEWS



낙산배, 감말랭이 필리핀 첫 수출 선적 상차식 개최

지난 2월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농가 및 물류회사 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 낙산배 및 감말랭이의 필리핀 시장 첫 수출 선적을 위한 상차식을 개최하였다. 우리군은 양양 농산물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3월 중순에는 필리핀 세브시의 브라더스마트에서 낙산배, 감말랭이를 포함하여 표고버섯, 산채, 꿀 등의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중심으로 해외 홍보·판촉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첫 수출을 교두보로 적극적 판매를 통해 가격 안정과 생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ASF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악성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양양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지정리 대규모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양돈밀집사육단지에 추가적으로 자동 세척·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한 차원 더 강화시켰다. 또한 관내 우제류사육농가 면역수준 향상을 위해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소독활동은 한층 더 강화하고 소독을 위한 생석회와 소독약을 가축사육농가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지방세 수입 전년보다 34억 증가한 422억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세 세입액은 422억 9백만원으로 2018년 387억 74백만원 대비 34억원(8.8%)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은 368억원, 2016년은 30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형관광 숙박시설 준공으로 취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납세자 권익보호를 통한 가산세 부담예방 대책 추진으로 취득세 자진 납부율 94.7%(전년대비 0.9%증)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7번국도 교통신호등 연동화 추진

강현면 물치리 ~ 현남면 지경리(동해막국수 앞), 양양읍 중합운동장사거리 ~ 손양면 송현사거리 2개 구간 42개 교차로의 교통신호등 연동화 및 신호체계 개선사업을 올 8월 중 시행한다. 교통신호등 연동화란 시간대별 주요 도로변 교차로의 차량 통행량에 따라 교통신호제어기를 순차적으로 제어해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차량 정체 시간이 최소화되고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및 매연가스 감소로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기대한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주민 제안 사업 확대 운영

올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규모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주민 제안에 의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공동체에는 1개 공동체당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및 활동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일회성 행사,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은 제외된다. 신청 금액의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달 중 서류 심사 및 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 선정 마을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컨설팅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숲 가꾸기 사업 대폭 확대

현북면 말곡리 등 420필지 약1,000ha 임야를 대상으로 천연림 보육, 숙어린나무 가꾸기, 등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양양읍 및 손양면 일원 군민 생활권과 인접한 공사유림 50ha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흡착물과 탄소흡수원 증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를 추진한다. 숲 가꾸기를 통해 생태·환경적으로 각종 재해에 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고, 도로 및 생활권 주변 가시권 산림을 건전하게 가꾸 숲에 대한 관심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추진상황 점검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지난 2월 17일 군 대외정책과와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은 올해 6월 신축공사 착공을 앞두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의원들은 공사 착공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반영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고제철 의장은 터미널 조성 부지가 연약지반이라 기초공사시 27m의 파일이 들어가는데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사업비 증대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며 사업비 계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했다.

김귀선 부의장은 최근 횡단보도와 방지턱 기능을 같이 하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터미널 시설물에 이와 같은 기능을 반영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및 안전을 증진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김우섭 의원은 설계내역에 일반 주차장이 39면으로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터미널 직원들의 기존 주차대수까지 생각하면 주차면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차장 추가 확보 및 유료 주차장 전환 등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김의성 의원은 터미널 설계에 택시기사 대기실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버스 주차가 13개 면으로 설계되었는데 현재



터미널의 면수와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종석 의원은 터미널 신축공사도 중요하지만 향후 터미널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근 1인 여행자들이 많고, 대부분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만큼 터미널 안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여 공간 설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향후 양양군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터미널 이전 사업을 잘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검토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지난 2월 24일 군 보건소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계획을 청취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소는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전 국도비 2억원의 사전사용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장비 구입에 1억원, 감염병 확산방지 물자 및 자재 구입에 1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양양군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진단기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다.

의원들은 인근의 강릉, 속초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철저히 방역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군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주민들에게 예방 홍보를 철저히 해주고, 인근 시군과의 공조를 통해 방역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죽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있으며 양양에서 남방 20km의 인구 해변에 주위 1km, 높이 53m의 우뚝한 봉이다. 옛날에는 섬이었다고 전하나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해변에서 바다 내음이 풍기고 기암괴석이 깎아서있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사시 울창하므로 죽도라 하였고, 이 섬의 장죽은 강인하여 화살용으로 적품(適品)이므로 조선시대 조정에 매년 장죽을 진상하였다 한다. 1927년 3월에 김덕삼이라는 여승이 창건한 암자인 죽도암(竹島庵)이 섬 북쪽에 있으며 또 방선암, 농구암, 연사대, 청허대 등이 있어 더욱 기묘하다.

특히 기괴한 것은 부애(浮崖)인데 죽도암 사이 깊숙한 곳에 깊이 3척, 직경3척 가량으로 원형이 되어 맑은 물이 사시 마르지 않고, 죽도봉 정상에는 어느 시대인지 미상이나 왕가의 태봉 유적이 있으니 해상 풍경을 조망하기 좋은 곳

이다. 정상에 새소리 바람소리 쉬어가는 곳 죽도정이 있으니 1965년 5월 13일 현남면내 유지들이 주축이 되고 행정의 지원을 얻어 준공하였다. 예전에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찾아 풍경을 노래했으며 양양팔경 6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에 죽도봉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편의를 더하니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다. 이 전망대는 높이 19.5m이며 철재 나선형으로 3층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전경은 남쪽으로 가깝게 인구항이 한눈에 보이고 인구해변과 멀리 휴휴암까지 바라볼 수 있다.

서쪽으로 백두대간이 멀리 병풍처럼 둘러싸이고, 북쪽으로는 죽도 해변과 동산 향을 비롯하여 멀리 하조대까지 보인다. 특히 이곳에서 바라본 죽도 해변의 서핑모습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이다.

방문객 안전을 위하여 전망대 최대 출입 인원을 40명으로



죽도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핑모습

제한한다는 안내판이 보인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두 갈래인데 하나는 인구마을 성향당 입구에서 오르는 코스로 목조 데크로 총 280개 계단이며, 울창한 송림사이로 솔향기가 더 없이 좋다. 중간 중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오르는 중간 좌측에 바위가 있는데 규모는 작으나 밀어 보면 흔들리고 수년의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는 자태를 유지하고 있는 바위로 주민들은 이 바위를 흔들바위라고 부른다. 또 다른 코스는 죽도 동쪽 바닷가에서 오르는 길이다. 목조 데크로 237계단이며, 오르는 중간 중간 보이는 바다 풍경은 장관 중의 장관이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물안개, 기압괴석, 철석 이는 파도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등등...

죽도는 바닷가 1km 전 구간에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꼭 가 봐야 할 명소로 1시간 정도면 죽도 전체를 천천히 둘러 볼 수 있다.

- ◎ **동산석구(洞山石臼)** : 죽도 동편 연사대 아래에 있다. 둥근형으로 스스로 움직여 서로 마찰됨에 따라 중심이 방아확처럼 파였다 하여 석구라고 하는데 방아확은 방아공으로 찼을 수 있게 돌절구 모양으로 우묵하게 판 돌구멍으로 방아공이가 떨어지는 곳에 묻고 그 속에 곡식을 넣고 찼거나 뺐는다.
- ◎ **주절암(駐節岩)** : 시인 선비와 관광객들이 구경할만한 곳이라 하여 즉 죽장을 멈춘다는 뜻에서 온 것이다.
- ◎ **방선암(訪仙岩)** : 옛날 봉래선인들이 놀던 곳이 있어 신선들이 상봉한다는 뜻으로 방선암이라 하고 각자(刻字)한 것이 입구에 있다.
- ◎ **청허대(淸虛臺)** : 죽도봉 북쪽에 이르면 심신이 상쾌하여 세상물정을 잊고 선경에 청허한 심정이 자연 솟아 난다하여 청허대라고 한다.

- ◎ **농구암(弄鵠岩)** : 선인들이 세사사를 멀리하고 백구를 벗삼아 한가한 세월을 보내던 곳이라 하며, 전망이 매우 좋아 누구나 한번 가면 떠나기 싫을 정도로 주위에 괴암기석이 있고 절경을 이루고 있다.
- ◎ **학바위** : 죽도의 동쪽 해안에 있는 바위인데 파도에 침식되어 그 모양이 학이 앉은 것과 같다하여 학 바위라 한다.
- ◎ **연사대(鍊砂臺)** : 옛날 적송자(赤松子)가 주사(走射)를 연마하던 곳이라 하며 대 아래에는 신선이 바둑 놓든 흔적이 있다. 적송자(赤松子)는 중국 전설시대 선인의 이름으로 신농(神農)때의 우사(雨師)로서 후에 곤륜산에 들어가 선인이 되었다 한다. 〈글·사진 문화원〉

■ 죽도 관련 옛 시 소개

竹島仙曰(죽도선구 : 죽도의 신설절구) 李海朝(이해조)
 深深蒼竹島(심심창죽도) / 푸르름이 깊고 깊은 죽도에서
 英英玉杵臼(영영옥저구) / 옥절구 소리 맑아 듣기도 좋다.
 磨轉何太速(마전하태속) / 얼마나 빨리 돌려서 길었느냐
 千劫難磨久(천겁탄지구) / 천겁의 기다림이 몸시 짧았네
 玄霜不再擲(현상불재도) / 평생 두 번 찼지 않으려
 雲英能見否(운영능견부) / 운영은 나타나지 않았네.
 我欲作窪樽(아욕작와존) / 내가 우묵한 술통을 만들어서
 長盛葡萄酒(장성포도주) / 포도주나 오래도록 담아두련다.
 ※운영(雲英) : 옛날 명가(名妓)의 이름임.

■ 자자소개

이해조(李海朝 1680 ~ 1711)
 본관은 연안. 자는 자동(子東). 호는 명암(鳴巖). 1681년(숙종7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1694년 빙고별감(氷庫別監), 1709년 2월 양양부사, 동년 9월 시가독서(詩歌讀書)를 한 후, 1710년 응교(應敎) 수원부사, 전라도 관찰사, 대제학을 지냈다.
 어려서부터 학문이 뛰어났고 시문에 능하여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으로부터 천재라고 격찬을 받았다.

이달의 책이야기



군주의 거울 영웅전

김상근, 21세기북스(2016)



‘철학적 사고’를 넘어 ‘행동하는 삶’을 위한 인문학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만나!

중세 유럽인들은 장차 군주로 양성할 차세대 리더를 위한 인문학 독서 장르를 ‘군주의 거울’이라 불렀다. 군주의 거울 중에서도 교과서적인 작품인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Bioi paralleloi)』은 로마 제국 번영을 위한 필독서이자, 이후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읽혀온 위대한 고전이다. 여러 강연과 저서를 통해 독자들에게 인문학적 영감과 감동을 불러일으켜온 연세대 김상근 교수는, 『군주의 거울, 영웅전』에서 현실에 적용 가능한 인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생생히 그려낸다. 그리스의 군주의 거울인 전작 『군주의 거울, 키루스의 교육』에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인 ‘성찰하는 삶(Vita contemplativa)’을 다루었다면, 로마 시대의 군주의 거울인 이 책은 ‘행동하는 삶(Vita activa)’에 초점을 맞춘다. 즉, 시련과 좌절을 온몸으로 극복한 영웅들의 역동적인 이야기를 펼쳐냄으로써, 실제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영웅전』을 통해 소환하고 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넘어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상의 세계를 다룬 이 책은, 그런 이유에서 우리 삶에 훨씬 더 가깝고 실질적인 교훈과 재미를 부여한다. 저자는 ‘철학’적 사고로 정체되어 있는 인문학이 아닌 현실 속에서 ‘행동’하게 만드는 인문학으로 『영웅전』을 탁월하게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책 속 밑줄 긋기

『비교 영웅전』의 저자 플루타르코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특출한 인물 50명을 분석한 뒤 이렇게 마지막 결론에 도달한다. 사람의 본성 자체는 잘 드러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지만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충격을 통해 원래의 본성이 마침내 분출된다고. 선한 사람은 이성의 통제로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악한 사람은 주변의 경계심과 본인의 이익을 위한 자제력으로 자신의 본성을 숨길 뿐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선하든 악하든 삶의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최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최악의 실패일 수도 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부터 그 사람의 숨어 있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355~356쪽)

양양교육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작은 아씨들

루이지 메이 올컷, 알에이치코리아 (2020)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한 편의 소설이다”

“선물도 없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크리스마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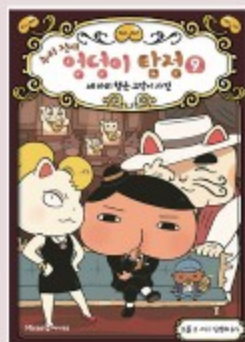
조가 양탄자 위에 벌렁 드러누우며 불만을 떠뜨렸다.

1863년 출간된 이후 150년 동안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작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를 탄생시킨 영원한 고전 『작은 아씨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른 영화 『작은 아씨들』의 스틸컷이 더해져 더 생동감 있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각자 다른 꿈을 꾸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면서도 따스한 가족의 사랑을 전하는 네 자매의 이야기는 여성들에게 사회적 제약이 심하던 그 시절부터 도전을 꿈꾸게 했으며, 지금도 여성주의 문학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문학적 가치로 남아있다.

영당이 탐정 9

트름, 아이세움(2020)



“아이큐 1,104의 추리천재, 영당이 탐정이 해결 못 하는 사건은 없다.”

“흠, 이대로는 위험하겠군.

생쥐 풍상씨가 노리는 건 행운 고양이 인형이니가 내가 시간을 좀 벌여 보도록 하지.”

영당이 탐정의 인기는 어디까지일까? 전국 초등학교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영당이 탐정의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다. 전편에서 자신의 진짜 얼굴을 공개한 괴도 유가 이번 9권에서는 계속 가면을 벗은 채로 영당이 탐정의 주변을 맴돌면서 어린이 독자들에게 반가움과 긴장감을 동시에 선사한다.

글·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03/12 침입자

주디

다크 워터스

03/19 더 프린세스 :

도둑맞은 공주

03/26 물란

레이제라블 : 뮤지컬

콘서트

04/01 패왕별희 :

디 오리지널



*상영(예정)작은 영화배급이나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투스파아테크	2명	화장품 생산직	09:00~18:00 (주5일)	연2,200만원
양양재활재가노인복지센터	1명	요양보호사	09:00~18:00 (주5일)	월180만원
미래경호빌앤리조트 풀비치	4명	조경원	08:30~17:30 (주5일)	월180만원 (협의)
미래총알엔에프	3명	기계설비조작원	3교대	월220만원이상 (협의)
양원이앤씨주식회사	1명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소지자)	09:00~18:00 (주5일)	월180만원이상 (협의)
푸른하늘환경(주)	1명	전기설비 유지보수원 (자격증 소지자)	09:00~18:00 (주5일)	연2,400만원이상
현대경건설	1명	건설경리사무원 (경력직)	09:00~18:00 (주5일)	연2,400만원
동양산업가스	1명	가스 배달원	09:00~18:00 (주6일)	월230만원
미래양안더스트리	1명	생산관리원(사무직)	08:00~17:00 (주5일)	월180만원
대운건설(주)	1명	토목기사 (중급이상)	08:00~17:00 (주5일)	월300만원
주식회사 윤진(홈마트)	1명	상품진열원	08:30~12:00 (주5일)	월80만원

새일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0년 여성가족부지원 취업희망여성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교육과정명	모집인원	교육기간	교육내용	모집기간
단체음식조리사양성 및 일반창업교육과정	20명	20.04.08 ~ 07.24 09:00~13:00 (45일/180시간)	한식조리 이론 및 실습 창업에는 조리실습 한식조리가농사 자격증 취득	3.31(화)까지
제과를 배우는 함의 임지도사과정	20명	20.04.13 ~ 06.04 09:00~13:00 (35일/140시간)	교구활용 및 용품 대상제 마른 지도법 직무소양교육	4.06(월)까지
경리사무원문과과정	20명	20.06.22 ~ 08.07 09:00~13:00 (35일/140시간)	한글/엑셀 이론 및 실기 대중프로그램 문장 ITQ현장연계 자격증 취득	6.16(화)까지
농산물가공취창업과정	20명	20.08.17~10.08 09:00~13:00 (90일/120시간)	창업을 위한 스타트업 감성/장류/식조 만들기 제품화/수확물/간접원자 만들기	8.31(금)까지

* 상기 과정은 센터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참여자격 취업의지가 확고한 만19세 이상 여성(교육보험 미가입자)

● 필수요건 병행학습(신분증 지참)

● 필수서류 구직신청서, 훈련청가신청서

● 교육특전 국비지원, 시후관리서비스 지원

● 선발방법 면접심사 후 교육생 선발

● 지원금급 10만원(희망직종 제외)

교육수료시 5만원 1차 합격, 교육종료 후 6개월내에 취·창업시 5만원 추가환급

새일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강원도 양양군 읍 안산1길 36 (양양군청정회관 2층)

전화 및 새일상담 환영 670-2890~3

2020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 지원내용 및 기준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대학등록금 : 1인, 100만원 한도 내

·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인 : 본인 또는 보호자
- 신청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읍면동장

- 중복지원 확인 및 지급 : 시장·군수(지원대상자의 거주확인 및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 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계좌로 입금, 단 1학년 신입생의 경우 1/4분기는 보호자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상시가능
- 지급시기 : 1/4분기 2월 20일까지
2/4분기 5월 20일까지
3/4분기 8월 20일까지
4/4분기 11월 20일까지

- 소급적용 기준 : 신청한 당해 연도에 한하여 소급가능

슬기로운 혈관 건강생활 실천 교실 운영

- 운영기간 : 3월 ~ 9월, 매주 화요일 예정
- 대 상 : 지역주민 및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 교육장소 : 보건소 다목적실
- 교육내용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관리
 - 질환별 영양관리 및 실습
 - 질환별 운동법 및 심폐소생술 체험
- 문의 및 참여 접수 : 양양군보건소 건강증진 (670-2543)

2020년 2월 군민정보화교육 (일정안내)

월별	기 간	접수기간	수 강 내 용
4월	3.30. ~ 4.24. 주간 (화, 목) 야간 (월, 수, 금)	3.23. ~ 3.27.	(주간) 스마트폰 입문 및 활용&정보 지키기
			(야간) 스마트폰 활용, ITQ한글(강의 및 실습 병행)
5월	5.4 ~ 5.29. 주간 (화, 목) 야간 (월, 수, 금)	4.23 ~ 4.29.	(주간) 인터넷 서비스 활용, SNS 입문 및 활용
			(야간) 동영상만들기, ITQ엑셀(강의 및 실습 병행)
6월	6.1 ~ 6.26. 주간 (화, 목) 야간 (월, 수, 금)	5.25 ~ 5.29.	(주간) 한글 입문&활용, 스마트폰 활용
			(야간) 포토샵(사진 편집), ITQ한글(강의 및 실습 병행)

- 장 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
- 인 원 : 28명(선착순) * 소수 신청시 취소 될수 있음
- 시 간 : (주간반) 10:00~12:00 / (야간반) 18:30~20:30
- 신청방법 : ① 인터넷 : 양양군청 홈페이지(www.yangyang.go.kr)
* [분야별정보]-[교육]-[교육신청]
② 전 화 : 033-670-2116
- * 교육일정 및 수강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도 있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모집

- 모집기간 : 3월 ~ 4월
- 대상 : 비질환자 중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인 성인 선착순 70명
 - 대상자 : 만 19세 ~ 65세 양양군 거주자 및 양양군 소재 직장인
 - 건강위험요인 : ① 혈압(수축기 130mmHg 이상/이완기 85mmHg 이상)
② 공복혈당 100mg/dL 이상
③ 허리둘레(남 90cm 이상 / 여 85cm 이상)
④ 중성지방 150mg/dL 이상
⑤ HDL 콜레스테롤(남 40mg/dL 미만/여 50mg/dL 미만)
- 우선선정 기준 : 신규참여자 및 건강위험요인 개수가 많은 사람 우선 선정
- 필수참여요건 : 스마트폰 소지자
 - 안드로이드 4.4 킷캣 이상, 아이폰 5이상, 블루투스 4.0 지원 버전 이상
- 참여혜택
 -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정보꾸러미

만75세 이상 어르신 치매예방관리 조기선별검사

양양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 치매조기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 기 간 : 연중(월~금)
- 장 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대 상 : 지역주민
 - 전수조사 대상 : 만75세 어르신(1945년생)
- 내 용
 - 치매조기선별검사, 치매예방 교육 및 상담, 이상자 정밀검진 의뢰(무료)
 - 홍보물품 제공(파스 등)
- 문 의 : 양양군치매안심센터 ☎670-2523, 2854

3월 2일 출시! 5월 1일 본격발행

모바일 강원상품권 zero
제로페이

문의 1670-0582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아름다운 선거, 18세 (2002.4.16. 이전 출생) 부터 시작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 4월 10일(금) ~ 11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나의 제안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경쟁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와 제도 개선에 관한 것으로,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을 공모합니다. 당선된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여 제도 개선에 노력합니다.

공모기간
2020. 2. 19.(수) ~ 2020. 3. 19.(목)

공모주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대상
본 공모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ha.go.kr)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자격
본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본 공모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ha.go.kr)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서류
본 공모는 신청서, 제안서, 예산서, 실적서,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절차
본 공모는 2020. 3월 19일(목)에 심사합니다.

기타
본 공모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ha.go.kr)에서 접수합니다.

문의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정책과 (☎112, 044-200-0000)

2020년 2월 21일부터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처벌받습니다

01. 집값담합 행위는 금지됩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02. 집값담합을 하면 처벌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제48조 제3호, 제4호

03. 집값담합 등 신고는 신고센터로 하세요.

홈페이지 dewbudongson.go.kr 로 신고하세요.
접입이 필요한 경우 ☎ 1833-4324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전화 주세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1833-4324
dewbudongson.go.kr

국토교통부



2020년 1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이 일몰 후 ~ 아침 6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집중 단속기간 운영 : 2020년 3월부터
※ 배출시간 미준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배출시간을 준수해 주세요.

각종 생활쓰레기는 일몰후 ~ 아침6시(청소시작 전) 사이에 쓰레기 배출 장소에 배출해 주세요.

2. 토요일 저녁은 배출을 자제해 주세요.

공휴일에 생활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날은 배출을 자제해 주세요.

3.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이용해 주세요.

생활쓰레기 종류에 따라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해 주세요. 대형폐기물은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셔야 합니다.

지정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활용품은 종량제봉투 대신 일반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이 가능합니다.

